

음운 변동이란?

▷ 환경 (음운적 환경, 형태적 환경)에 따라 음운이 변하는 현상. 변동 전후의 차이를 기준으로 네 종류의 변동으로 분류됨.

연음이란?

▷ 앞 음절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앞 음절의 종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는 현상. 음운 변동이 아님. 종성 관련 음운 변동에서 뒤게 오는 모음의 실제, 형식 형태소 여부가 중요.

▷ 연음 vs [연음]

j/h/l/-/□

j/h/l/-/□

변동 XX

변동 양상을 기준으로 나는 음운 변동

교체

▷ 음운 개수 변화 \times , 기존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대체됨.

탈락

▷ 음운 개수 -1 , 기존 음운이 소멸함.

축약

▷ 음운 개수 -1 , 기존의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짐.

첨가

▷ 음운 개수 $+1$, 기존의 빈 자리에 하나의 음운이 추가됨.

교체

1. 음절의 끝소리 규칙 (음절 말 평파열음화)

▷ 음절의 종성에 올 수 있는 소리가

'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' 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.

이위의 자음이 종성에 오면 'ㅂ, ㄷ, ㄱ' 로 교체됨.

x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.

▷ ^xㅃ, ^xㅆ => ㅂ

ex) 무릎 [무릅]

^xㅍ, ^xㅑ, ^xㅓ, ^xㅕ, ^xㅗ, ^xㅛ, ^xㅜ, ^xㅠ => [

ex) 짚다 [짚다], 옷 [은], 있다 [읷다]

낫 [낫], 옷 [은], 하늻 [히려]

▷ ㅍ, ㅑ => ㅍ

ex) ㅍ [ㅍ], 해질녁 [해질력]

자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음·ㄷ·ㄱ

조음 위치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 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조음 방법						
파열음	평음	ㅂ	ㄷ ㅌ ㅍ	ㅈ ㅊ ㅌ	ㅋ	
	경음	ㅃ				
	격음	ㅍ				
파찰음	평음		ㅅ	ㅆ ㅈ ㅊ		
	경음					
	격음					
마찰음	평음		ㅅ ㅆ			ㅎ
	경음		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▷ ㅃ, ㅍ → ㅂ
 ㅌ, ㅍ, ㅅ, ㅆ → ㄷ
 ㅋ, ㆁ → ㄱ

) 조음 방법만 바뀜.

▷ ㅆ, ㅆ, ㅆ, ㅎ → ㅅ

) 조음 위치와 방법이 다 바뀜.

연음이 일어날 때의 음·끝·규 실현 양상

(조사, 접사, 어미)

▷ 미평파열음 받침 + 형식 형태소인 모음 = 그냥 연음

ex) 무릎에 [무르페]

웃이 [오시]

(조사, 접사, 어미 제외 나머지)

▷ 미평파열음 받침 + 실질 형태소인 모음

= 음·끝·규 실현 후 연음

ex) 무릎 위 [무르뷔]

웃안 [오단]

이러한 현상은 음·끝·규뿐만 아니라 종성의

제약에 의한 음운 변동에서는 다 일어남.

(차음군 단순화가 대표적임.)

다만, 이 현상의 예외가 있음.

▷ 맛있다 [마딘따/ 마싯따]

이는 인종의 언어 생활을 반영한 것임.

▷ 다만, '맛없다'는 [마덱따]로

제대로 발음됨.

교체

2. 자음 동화 - '비음화'

① 안울림소리의 비음화 (역행 동화) : ✓

▷ 앞음절 종성의 'ㅂ, ㅅ, ㄱ' 이 뒷음절 초성의 (음운상)

비음 'ㄴ, ㄹ' (ㅇ은 초성에 못옴.) 의 영향에

의해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 'ㄹ, ㄴ, ㅇ' 으로

변하는 현상. (음·끝·규 먼저)

ex) ~~밤물~~ [밤물], ~~닫는~~ [닫는], ~~빙맥~~ [빙맥]

무릎 높이	갈나	놓는	중꺾마
→ 무릅노피	→ 간나	→ 논는	→ 중꺾마
→ [무릅노피]	→ [간나]	→ [논는]	→ [중꺾마]
	낫는	곶말	부익 내무
	→ 난는	→ 곶말	→ 부익 내무
	→ [난는]	→ [곶말]	→ [부익내무]

저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안올림소리의 비음화

조음 위치 조음 방법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 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파열음	평음	ㅂ	ㄷ		ㄱ	
	경음	ㅃ	ㄸ		ㄲ	
	격음	ㅍ	ㅌ		ㅋ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		ㅊ		
	격음			ㅌ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▷ ㅂ, ㄷ, ㄱ → ㅁ, ㄴ, ㅇ) 조음 방법만 한번 바뀜.

▷ ㅍ → ㅃ → ㅁ
 ㅌ → ㄸ → ㄴ
 ㅋ, ㅋ → ㄲ → ㅇ) 조음 방법만 두번 바뀜.

▷ ㅈ, ㅊ, ㅌ, ㅎ → ㅈ → ㄴ) 조음 위치가 한번, 방법이 두번 바뀜.

② 'ㄹ'의 비음화 (순행 동화와 상호 동화)

▷ i) 종성 '마, 음' 뒤의 'ㄹ'이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인 'ㄴ'으로 변함. (순행 동화): ↗

ex) 금리 [금^ㄴ리], 종로 [종^ㄴ로]

- ii) 종성 '다, 고, 백' 뒤의 'ㄹ'이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인 'ㄴ'으로 변함.

(이때 i와 다르게 파열음인 'ㄷ, ㄱ, ㅂ'의

조음 방법과 같아진 것이 아니므로 엄밀히

다치면 'ㄹ → ㄴ'의 과정이 자음 동화가 아님.)

그 이후 'ㄴ'의 영향으로 'ㄷ, ㄱ, ㅂ'이

'ㄴ, ㄹ, ㅁ'으로 변하는 안울림소리의 비음화

가 일어남. (상호 동화): ↘

ex) 몇리 → 면리 → 면^ㄴ리 → [면^ㄴ시]

척리 → 척^ㄴ리 → [척^ㄴ시]

금로 → 금^ㄴ로 → [금^ㄴ노]

ㄹ ㄷ) 'ㄴㄹ' 구조의 세 음절의 한자어
의 경우. 일반적으로 유음화가
일어나는 환경이지만 'ㄹ'이 'ㄴ'
으로 변하는 퇴음화가 일어난다.

(순행 동화): ↗

* 두 음절 한자어는 ㄷ의 현상
이 일어나지 않음.

ex) 공권력 [공권^ㄹ력], 입원료 [이원^ㄹ료]
표현론 [표현^ㄹ론], 출산률 [출산^ㄹ률]
권력 [권^ㄹ력]

※ '산신령 [산실령]' 처럼 한자어 형식이
(□ + □) 구조이면 iii 이 일
어나지 않음. 위의 예시들처럼
(□ + 력, 료, 른 ...) 구조여야 함.

자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'ㄹ'의 비음화

조음 위치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 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조음 방법						
파열음	평음	ㅂ	ㄷ		ㄱ	
	경음	ㅃ	ㄸ		ㄲ	
	격음	ㅍ	ㅌ		ㅋ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(2, 1, 2)	(2, 1, 2)	ㅉ	(2, 1, 2)	
	격음			ㅊ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① ㅁ, ㅇ 뒤의 ㄹ → ㄴ) 조음 방법만 한번 바뀜.

② ㄷ, ㄱ, ㅂ 뒤의 ㄹ → ㄴ

바뀐 ㄴ 앞의 ㄷ, ㄱ, ㅂ → ㄴ, ㅇ, ㅁ

조음 방법만 두 번 바뀜.

③ 세 음절 한자어 ㄴ 뒤의 ㄹ → ㄴ) 조음 방법만 한번 바뀜.

교체

3. 자음 동화 - '유음화'

▷ 'ㄴ' 이 'ㄹ' 의 앞, 뒤에서 'ㄹ' 로 변하는 현상.

① 순행 유음화

ex) 칼날 [칼^ㄹ날], 찰나 [찰^ㄹ나], ^{탈락 후 유음화} 끌^ㄹ는 [클^ㄹ는]

② 역행 유음화

ex) 신^ㄹ라 [실^ㄹ라], 논^ㄹ리 [놀^ㄹ리], 권^ㄹ력 [귂^ㄹ력]

③ 순행 + 역행 (상호 동화 X)

ex) 물^ㄹ난^ㄹ리 [물^ㄹ랄^ㄹ리]

저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유음화

조음 위치 조음 방법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 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		파열음	평음	ㅂ	ㄷ	
경음	ㅃ		ㄸ	ㄲ		
격음	ㅍ		ㅌ	ㅋ	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		ㅉ		
	격음			ㅊ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▷ ㄴ → ㄹ) 조음 방법만 바뀜.

교체

4. 된소리되기

i) 종성 'ㅂ, ㄷ, ㄱ' 뒤의 'ㅂ, ㄷ, ㅅ, ㅈ, ㅊ, ㅋ'
→ 'ㅃ, ㄸ, ㅆ, ㅊ, ㅋ, ㆁ'

ex) 밥솥 [밥쑈], 돋보기 [돋봘기], 국밥 [국뻘]
무릎도 [무릅도], 같다 [갈따], 부엌도 [부억도]
음다 [읍따], 할다 [할따], 익다 [익따]

▷ '할다'와 같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
종성의 뒷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음운 변동

「 할다 → 할따 → 할따 → [할따] 」
음운 된소리 자판 되기

'음 → 된 → 자판' 이라 외우면 됨.

ii) 어간 끝음절 종성 'ㄴ, ㄹ' 뒤의 어미 초성 'ㅂ, ㄸ, ㅅ, ㅈ, ㅊ'
→ 'ㅃ, ㄲ, ㅆ, ㅊ, ㅌ'

ex) 신발을 신다 [신따]

이때 표기가 동일한 체언이나, 접미사가 붙은
파생 용언의 어간을 조심해야함.

ex) 출생 신고 [신고] : 체언이므로 된소리되지 xx

신발을 신고다 [신고다] : 어간이 '신고-' 까지

이므로 어간 내에서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음.

iii) in 한자어, 2 종성 뒤의 'ㄷ, ㅅ, ㅈ' → 'ㄷ, ㅅ, ㅈ'

ex) 갈등 [갈똥], 일사천리 [일사천리], 결재 [결재]

iv) 미래시제 관형사형 전성 어미 '-(으)'

뒤의 'ㅂ, ㄷ, ㅅ, ㅈ, ㄱ' → 'ㅂ, ㅅ, ㅈ, ㅈ, ㄱ'

ex) 먹을 것 [어글꺼], 둘 데 [둘 데], 알 바 [알 바]

v) 어말 어미 중 ' ~ ㄷ, ~ ㄷ, ~ ㄷ, ~ ㄷ, ~ ㄷ'

↓

' ~ ㄷ, ~ ㄷ, ~ ㄷ, ~ ㄷ, ~ ㄷ'

ex) ~ 할밖에 [할밖에], ~ 할걸 [할걸], ~ 할세라 [할세라]

~ 할지라도 [할지라도]

자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된소리되기

조음 위치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 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조음 방법						
파열음	평음	ㅂ	ㄷ		ㄱ	
	경음	ㅃ	ㄸ		ㄲ	
	격음	ㅍ	ㅌ		ㅋ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		ㅉ		
	격음			ㅊ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▷ 'ㅂ, ㄷ, ㅅ, ㅈ, ㄱ' → 'ㅃ, ㄸ, ㅆ, ㅉ, ㅋ'

조음 방법만 바뀜.

저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구개음화

조음 위치 조음 방법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 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		파열음	평음	ㅂ	ㅃ	
경음	ㅍ		ㅑ	ㅋ		
격음	ㅍ		ㅓ	ㅋ	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		ㅊ		
	격음			ㅉ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▷ 'ㄷ, ㅌ' → 'ㅈ, ㅊ') 조음 방법과 위치 모두 변함.

'조음 방법 + 조음 위치' 가 변하는 면동

i) 음·끝·규 'ㄱ, ㅋ, ㆁ, ㅎ' → 'ㄷ'

ii) 구개음화 'ㄷ, ㅌ' → 'ㄱ, ㆁ'

나머지는 모두 조음 방법만 변함.

교체 중 순수 음운 변동인 것과 형태 음운 변동인 것

▷ 순수 음운 변동 (음운 환경만 갖춰지면 일어남.)

i) 음·끝·규 (다만, 연음과 관련될 때는 예외)

ii) 안을림소리의 비음화, 'ㄹ'의 비음화 ①, ②

iii) 유음화

iv) 된소리되기 ①

▷ 형태 음운 변동 (형태소, 어간, 어미, 한자어 등 음운 외적
인 환경까지 갖춰져야 함.)

i) 연음 시의 음·끝·규 (실질 형태소 모음)

ii) 'ㄹ'의 비음화 ③ (한자어)

iii) 된소리되기 ② ~ ⑤ (어간, 어미, 한자어)

iv) 구개음화 (형식 형태소 'i' or 'j')

탈락

1. 자음군 단순화

▷ 종성에 두개의 자음이 올 수 없으므로
겹받침이 올 때 앞, 뒤의 자음 중 하나가
탈락함.

▷ ㄹㄱ, ㄹㅇ, ㄹㅍ 는 앞이 탈락

나머지는 뒤가 탈락.

따라서 앞이 탈락하는 것만 위우면 된다.

▷ 다만 예외가 있는데

① 어간 종성 '리' 뒤에 '기'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'리'에서 '기'이 탈락함.

ex) 맑다 [막따] vs 맑고 [알꼬], 맑기 [말끼]

② 동사 '맑다'의 어간 '맑-'은 '리'이 탈락함.

ex) 여덟 [여덜] vs 맑다 [말따]

③ 형용사 '넓죽하다, 넓적하다, 넓둥글다' 등은 '리'이 탈락함.

ex) 넓죽하다 [넙쭈카다], 넓적하다 [넙쩌카다]

넓둥글다 [넙똥글다]

▷ 자음 단순화는 음·글·주와 마찬가지로 연음 시
환경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짐.

접반침 + 형식 형태소 모음 ⇒ 뒷받침이 연음됨.
ex) 닭이 [달기]

접반침 + 실질 형태소 모음 ⇒ 자·단 후 연음됨.
ex) 흙 위에 [히키에]

▷ 접반침 중 뒷받침이 'ㅅ'인 것들은 연음 시
'ㅅ'이 'ㅆ'으로 바뀜.

ex) 값이 [갑씨], 샅이 [삭씨], 외곡으로 [외글씨로]

탈락

2. 'ㄹ' 탈락

i) 어간 끝음절 중성 'ㄹ' 뒤에 'ㄴ, ㄹ, ㅁ, 시, 오'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'ㄹ'이 탈락함.

ex) 살다 + -니 ⇒ 사니 [사니]

살다 + -세요 ⇒ 사세요 [사세요]

살다 + -습니다 ⇒ 삽니다 [삽니다]

살다 + -오 ⇒ 사오 [사오]

ii) 단어의 형성 시 (파생, 합성) 'ㄹ' 뒤에

'ㄴ, ㄹ, ㅁ, ㅂ'가 오면 'ㄹ'이 탈락함.

이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님.

ex) $\left(\begin{array}{l} \text{달} + \text{님} = \text{달님} \\ \text{vs} \\ \text{딸} + \text{님} = \text{따님} \end{array} \right. \text{ (이 예시쌍 기억!)}$

솔 + 나무 = 소나무

활 + 살 = 화살

▷ 'ㄹ' 탈락은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
유일한 자음의 음운 변동임.

탈락

3. 'ㅎ' 탈락

▷ 어간 끝음절 중성 'ㅎ'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'ㅎ'이 탈락함.

ex) 쫓아 [조아], 쌓아 [샤아]

▷ 'ㅎ' 탈락은 축약, 자-단과 헛갈릴 수도 있음.

ex) 끌고 [끌코]

끌어 [꺼녀]

→ $ㅎ + ㄱ = ㄱ$

축약이 일어남.

'ㅎ' 탈락 아님.

→ 'ㅎ' 탈락 후 L연음됨.

자-단이 있다면 'ㅎ'이

바로 연음되어 [꺼녀]

가 되었을 것임.

축약

1. 저음 축약 (저센소리되기)

▷ 'ㅎ' 과 저센소리가 존재하는 예사소리

'ㅂ, ㄷ, ㄱ, ㄴ' 가 만나면 서로 캡쳐져

'ㅍ, ㅌ, ㅋ, ㆁ' 가 됨. 이는 양상이 두 가지임.

[종성 ㅎ + 초성 ㅂ, ㄷ, ㄱ, ㄴ → ㅍ, ㅌ, ㅋ, ㆁ
ex) 풍다 [조타], 날다 [나타]

[종성 ㅂ, ㄷ, ㄱ, ㄴ + 초성 ㅎ → ㅍ, ㅌ, ㅋ, ㆁ
ex) 목화 [모과], 만형 [마형]

▷ 음·글·귀 또는 자·단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축약이
이 들보다 나중에 일어남.

ex) 옷 한 벌 → 온한벌 → [오탄벌]

닭 한 마리 → 닥한마리 → [다칸마리]

첨가

1. 'ㄴ' 첨가

▷ 받침 뒤에 실절 형태소 단모음 'ㅣ' 또는 반모음 'ㅍ'가
오면 초성에 'ㄴ'이 첨가됨. (형식 형태소면
연음이나 구개음화가 발생)

ex) 식용유 [시공뉴], 급행열차 [그평열차], 흙이불 [흔니불]

▷ 음-끝-기나 자-단과 같이 일어나면 어려움.

ex) ^{자-단} 샷일 → ^{ㄴ첨가} 삭일 → ^{비음화} 삭닐 → [상닐]

탈락, 축약, 첨가 중 **순수 음운 변동**인 것과 **형태 음운 변동**인 것

▷ **순수 음운 변동**

i) 탈락 중 자음군 단순화

ii) 자음 축약

▷ **형태 음운 변동**

i) 탈락 중 'ㄹ' 탈락 (형성, 어간, 어미), 'ㅎ' 탈락 (어간, 어미)

ii) 'ㄴ' 첨가 (실질 형태소)

모음의 음운 변동

1. 모음 탈락 (형태 음운 변동 + 표기 반영)

동음 탈락

▷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과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둘 중 한 모음이 탈락함.

ex) 가다 + -아서 = 가서 [가서] ⇒ 'ㅏ' 하나 탈락.
(참고로 어간의 'ㅏ'와 어미의 'ㅏ' 중 무엇이 탈락하는지는 규명되지 않음.)

'-' 탈락

▷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 '-'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'-'가 탈락함.

ex) 담그다 + -아 = 담가 [담가]

잠그다 + -아 = 잠가 [잠가]

우러르다 + -아 = 우러러 [우러러]

들르다 + -아 = 들러 [들러]

다다르다 + -아 = 다다라 [다다라]

치르다 + -어 = 치러 [치러]

이후 태운
용언의 불규칙
활용과 헛갈
리지 말 것

모음의 음운 변동

2. 교체 - 반모음화 (모음 축약이라고도 함.)

▷ 용언 어간 끝음절 단모음 'ㅣ' 또는 'ㄴ/ㄷ'
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단모음 'ㅣ' 또는 'ㄴ/ㄷ'
가 반모음 'ㅟ' 또는 'ㅜ'로 바뀌어 뒤의 모음과
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는 현상. 필수적인 현상은
아님. (형태 음운 변동 + 포기 반영)

ex) 보다 + -아 = 보아 [보아] / 봐 [봐^ㅟ]

ㅂ/ㄴ/ㄷ vs ㅂ/ㅜ/ㅟ

▷ 다만 '이리 와' 처럼 초성이 없는 단모음 'ㅣ'
또는 'ㄴ/ㄷ'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반드시
이중 모음으로 축약됨. '이리 오아' 라고 안함.

※ 되다 + -어 = 되어 [되어] / 왜 [왜:]

는 과거 '니'가 이중 모음이던 것과

관련된 것으로 오늘날 잘 설명되지 않음.

모음의 음운 변동

3. 첨가 - 반모음 첨가

▷ 용언 어간 끝음절 모음 'i, ɨ, ɯ' 뒤에
'-j'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반모음 'j'
가 첨가되는 현상. 필수적인 현상은 아님.

(형태 음운 변동 + 표기 반영 X)

ex) 피다 + -어 = 피어 [피어 / 피여]

→ ㅍ / i / -어 vs ㅍ / i / j / -어

되다 + -어 = 되어 [되어 / 되여]

→ ㄷ / ɨ / -어 vs ㄷ / ɨ / j / -어

사잇소리 완벽 분석

▷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'시'의 흔적임.

▷ '명사 + 명사' 구조의 종속 합성 명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며 / 앞말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자리가 있으면서 (받침이 없으면서) /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유어가 구성 요소일 때, 사이시옷이 표기됨.

▷ '명사 + 명사' 구조의 종속 합성 명사일지라도 항상 일어나는 현상은 아님.

▷ 따라서 사잇소리 i) 된소리되기는 앞에서 나온 된소리되기과 별개로 취급해야 함.

▷ 합성 전에도 앞말 종성이 '시'로 끝나는 단어와 헷갈리지 말 것.

ex) 버섯 + 국 = 버섯국 [버선국] → 보통의 된소리되기.

사잇소리 현상의 종류

i)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안울림 예사소리로 시작하며 합성어가 될 때, 뒷말 초성이 된소리가 됨.

ex) 초 + 불 = 초불 [초블 / 초뽀블]

※ 된소리되기만 일어난 [초블]이 원칙 발음임.

사잇소리가 들어간 표기만 보고 '초블 → 초뽀블 → 초뽀블' 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됨. 반드시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보통의 된소리되기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음. 이는 ii), iii)도 마찬가지.

산 + 길 = 산길 [산깰]

등 + 불 = 등불 [등뽀블]

ii)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피음으로 시작하며
합성될 때, 앞말 종성에 'ㄴ'이 첨가됨.

ex) 이 + 몸 = 잇몸 [인몸]

코 + 날 = 콧날 [큰날]

·X· 보통의 'ㄴ' 첨가는 뒷말 초성에서 일어남.

그러므로 보통의 'ㄴ' 첨가와 구별해야 함.

iii)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며
합성될 때, 앞말 종성과 뒷말 초성에 'ㄴ'이 첨가됨.

ex) 깨 + 윷 = 껏윷 [껏넙]

나무 + 윷 = 나뭇윷 [나무넙]

베개 + 잇 = 베갯잇 [베개넙]